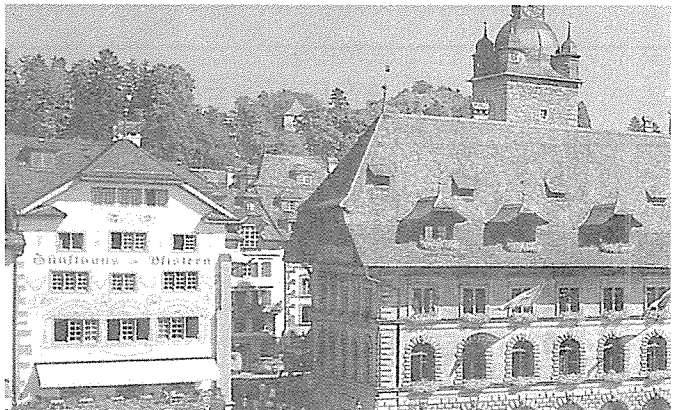


# 유럽을 다녀와서(II)



• Kapell 木橋와 Luzern 市街

李 承 權  
 건설안전기술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전문위원

世界 3대美港의 하나라 불리우는 나폴리(Napoli) 항구는 소문만큼이나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다. 보메로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나폴리 항구는 푸른 野山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래로 작고 깨끗한 市街地와 그림같은 船舶들이 한가로이 정박해 있고 파도없는 에메랄드빛 바닥물은 潮水같이 잔잔하다. 나폴리항을 배를 타고 멀리나가 바다에서 보는 육지의 나폴리는 더욱 아름답다고 하니 과연 절경중에 절경이리라.

영화 “폼페이 最後의 날”로 有名한 폼페이는 기원前 4世紀頃에 村落이 생겨 6世紀頃에 形成된 都市로써 人類의 性的인 타락으로 神의 저주를 받아 베스부스 화산이 79년에 분출해서 그 용암이 11km 떨어진 이곳에 내려앉아 폐허가 된 곳으로 후세에 再발굴하여 당시의 시설등이 도시형태를 이루며 巨大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일부분에 해당하며 앞으로 계속 발굴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하며 아폴로 신전을 비롯하여 광장, 수도국, 재판소, 박물관, 목욕탕(사우나, 혼탕) 환락가(남창,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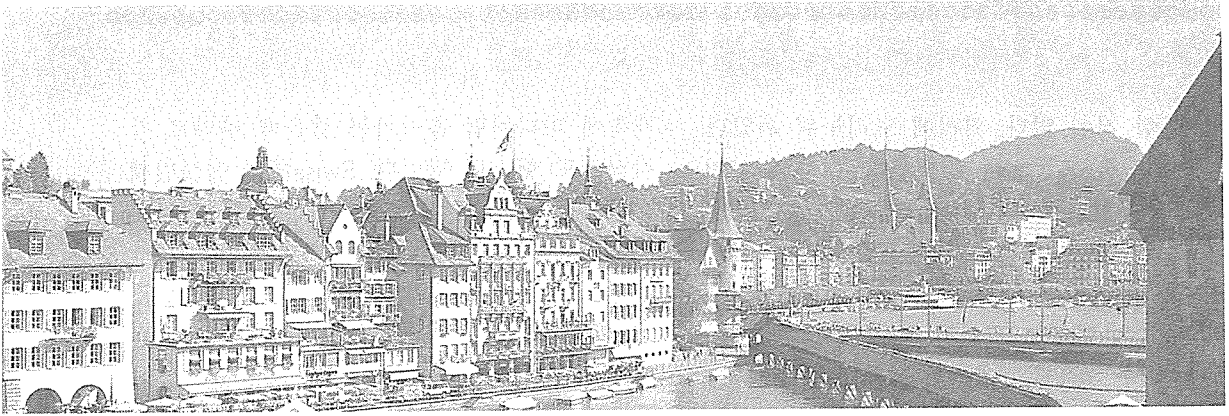
창), 우마차 바퀴자국, 술 그리고 “베띠”라는 상인의 대저택, 각 주택의 대문과 번지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베스부스산위에는 용암을 분출한 커다란 분화구가 또렷하게 남아있다.

가구工場으로 有名한 소렌토(Sorrento)는 海邊에 위치한 조용한 山材이다. 장난감같은 조그만 自動車들이 집주변에 즐비하고 木工場의 젊은이들은 家業을 이어받아 代代로 물려받은 家具業을 世界에서 第1가는 家具를 만든 다른 장인정신으로 熱心히 일하고 있었다.

Roma로 가기 爲해 우리가 탄 BUS가 Sorrento를 떠날때는 海邊에 비쳐지는 夕陽의 아름다움이 극치를 달했다.

로마에서 저녁 食事後 야간열차를 타고 밤새달려 아침 10시30분경에 Swiss Zurich역에 도착했다. Europe 全地域을 연결하는 대중中心 交通인 이 列車은 長距離를 달리면서도 피로감이나 지루한감은 別로 주지않았다.

列車内部가 側通路形式이며 6人1室로 構成되어 3人用 座席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거나



必要에 따라 seat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낮 시간 走行時는 上中下3段으로 設置된 seat 中 下段은 의자요, 中段은 등받이이며, 上段은 선반이 되고, 夜間에는 모두가 寢臺가 되어 자면서 旅行하게 되어있다. 그러면서도 通路邊은 窓을 最大로 하여 視野를 넓혀주므로 旅行 中 照望을 充分히 할 수 있도록 했다.

Switzerland 最大의 都市라는 이곳 Zurich는 복잡한 서울驛과는 전혀 다르게 驛舍나 Plateform의 규모도 작고 旅行客의 숫자도 생각외로 적은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리 크지않은 驛廣場 앞에는 空氣오염을 줄이기 爲하여 運用한다는 두칸짜리 地上電車가 한가롭게 都市복판을 지나가고 있다.

Swiss는 서쪽으로부터 海洋性, 동쪽으로부터 大陸性 氣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北極의 찬 空氣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기찬 더운 空氣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多樣한 氣候現像에 따라 自然風景이 至極히 아름답게 形成된다고 한다.

Swiss는 西獨, Austria, France와 Italy에 둘러싸인 Europe 中部의 聯邦共和國으로 國土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40%(41,293km<sup>2</sup>) 程度이며 地形的으로 Alps지대, 中央지대, 유라지대로 3等分되는데 北部地域인 유라지대는 5,200ft의 몇몇 高山地帶를 除外하면 大部分 2,400ft 程度로 이곳에는 울창한 常綠樹林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제네바호수부터 콘스탄스호수까지 이어지는 中部지대는 大部分의 人口와 産業施設이 밀집되어 있고, Swiss 國土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Alps 山岳地帶는 主要한 觀光資源으로써 平均 5,576ft의 아름다운 산봉우리들과 계곡, 빙하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全國土의 2/3가 눈과 얼음, 바위와 森林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實際로 居住가 可能한 地域은 11,680km<sup>2</sup>에 不過하다고 한다. 그래서 人口는 많은 편(밀도 157/km<sup>2</sup>)이라고는 하나, 서울人口의 절반 程度인 680여만명이 살고 있으며, 天惠관광자원과 國際금융의 中心地이면서도 精密技術을 자랑하는 細工業을 바탕으로 世界에서 가장 富裕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Zurich驛에서 Luzern으로 가는 길에 市内구경을 했다. 푸르고 맑게 흔들리는 Zurich 湖水를 품에 안고 나지막한 푸른언덕에 둘러싸여 있는 Zurich의 風景은 人間의 文明과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잘 保存된 大自然의 싱그러움이 調和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준다. Zurich市内 복판을 흐르는 Limmat江 양쪽에는 聖피터 大聖堂(st. peters)과 大寺院(Grossmünster)을 비롯, 마르크 샤갈이 製作한 Glass window로 有名한 프라우민스터(Fraumünster) 敎會가 우뚝솟아 눈에 띈다.

Zurich市民들은 근면하며 청결하기로 Europe에서 정평이 나있다고 한다. Bus를 타고 지나면서 보아도 거리 구석구석 어느 하나

지저분한 것이 없다. 거리에 드러누워 쉬었다가 가고싶은 충동심마저 느낀다. 그래서 인지 그들의 청결함에 대해 에이레의 作家 James Joyce는 “Zurich는 너무나 깨끗하여 Bhanhope 거리에 옆질러진 스프를 spoon없이 먹을 수 있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특히 마구 버리는 우리의 美化習慣을 再參定立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中央驛에서 Zurich湖畔까지 長方形으로 길게 뻗어있는 이 거리는 이 都市에서 가장 크고 봄비는 거리로 화려한 Shopping상가일 뿐 아니라 重要的 國際的 業務地域이기도 하다. 商店이나 많은 銀行은 아름답게 늘어진 街路樹들 사이로 줄지어 서있으나 오늘이 마침 休日이라서 오가는 관광객들만 보일 뿐 商店들은 모두 문을 닫고 show window로 Swiss의 名品들만 호화로운 照明과 함께 高級스럽게 진열되어 있으며, 역에서 20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Swiss가 낳은 위대한 교육가 페스탈로찌(1746~1827) 동상이 위엄있게 서있다.

山과 樹林帶와 湖水의 나라 Swiss, 이 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레만호수는 길이가 자그만치 60km에 달한다고 하니 이것은 湖水라기 보다 도 차라리 바다라 表現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汽車에서 얼마를 달려도 한개의 湖水가 안

개속에 바다처럼 흘러가곤 했을때 바다로 착각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Swiss에서 여섯번째 간다는 Zurich 湖水는 깊이가 143m나 된다니 湖水의 概念이 整理가 안될 지경이다.

거울같이 맑고 바다처럼 넓은 Zurich湖水, Alps의 萬年雪이 그림처럼 비치는 호수위에는 백조가 무리지어 놀고 관광객을 태운 벤치등이 아름답게 배치된 호반에는 주민들이 군데군데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Alps 山에는 관광객이 쉽게 오를 수 있는 jungfray(13,200ft), Titlis(10,000ft), Ligy(5,940ft), Pilatus(7,035ft) 山 등이 있는데 우리들은 Luzern에 있는 필라투스산을 擇하기로 했다. 알프스산맥의 한 영봉인 Pilatus는 Frankmuntegg에서 出發하여 40人乘 cable car로 3km쯤 오르고, 나머지 1km는 가파른 岩壁을 40人乘 Cable car로 올라갔다. 登程方法은 空中 cable car外에 岩石위를 달리는 아프트식 登山鐵道가 있다고 한다. 이 登山鐵道는 1880년 Zurich의 Engineer인 Eduard Locher의 指揮下에 단 40일만에 完成된 鐵道로써 독특한 水平톱니바퀴 장치로 48%의 傾斜面을 힘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말로만 듣던 Alps山 頂上에 올라 눈 아래 펼쳐지는 Luzern市街地나 끝없이 펼쳐진



• 알프스산에서의 筆者

푸른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솟아오른 암벽들과 깎아지른 절벽들, 울창한 樹林, 커다란 바위들과 흰구름에 싸인 무수한 산봉우리, 눈덮인 산들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은 無我的境地라 아니할 수가 없다.

Pilatus에서 下山하여 Bus로 Swiss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힌다는 루체른(Lucerne)을 찾았다. 루체른은 인터라켄과 Zurich의 中間쯤에 位置한 都市로 루체른 湖水 북서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古典美와 現代인 아름다움이 自然스럽게 調和를 이루고 있는 루체른은 600年前에 쌓여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리에는 16세기경에 지어진 古風스런집들이 추녀를 잇대고 늘어서 있다.

루체른에서 가장 有名한 觀光名所는 뤼스(Reuss)江을 가로지르는 카펠브리케(Kapellbrücke)라고 한다. 世界에서 가장 오래된 木造다리로 1333年頃에 세워졌다는 이다리는 붉은 기와를 이은 지붕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나무난간은 붉은 꽃으로 덮여 있고, 内部는 순교자들과 영웅들의 영광을 묘사한 板畫들로 전구간이 장식되어있다. 다리 끝에는 유명한 8각형의 塔바서투름(Wasserturm)이 서있는데 이것은 元來 給水用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감옥으로 바뀌었으며 고문실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리 밑을 흐르는 Reuss江물은 한눈에 水深이 모두 보이며 飲料水로도 전연 손색이 없다고 한다.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年前부터 下水, 汚水 등을 江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別途로 처리하므로써 世界에서 가장 질 좋은 물을 保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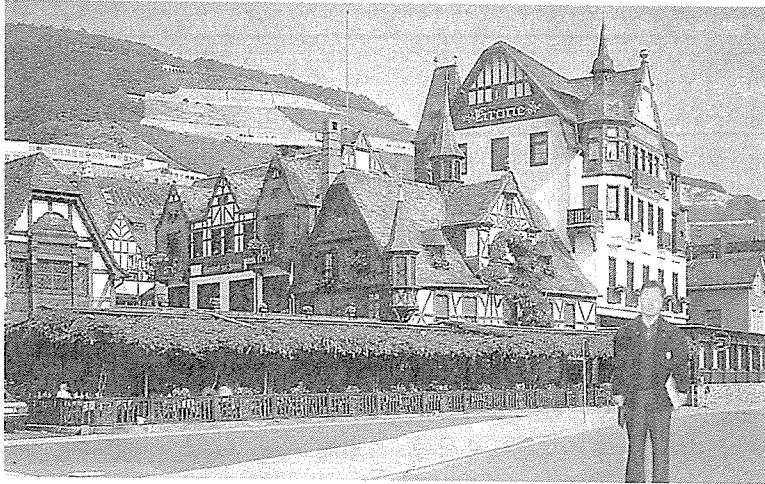
그러나 저 有名한 프랑스의 세느江, 영국의 테임즈 江, 독일의 네카어 江 등은 抒情的인 이름보다는 直接 탐사해 보니 우리나라의 漢江에 비해 너무나도 빈약하고 規模도 작다못해 초라할 程度이다. 따라서 世界 어떤 江들 보

다도 넓고 크며 아름다운 天惠의 우리 江들을 잘 保存하고 아끼며 汎國家的인 次元에서 더욱 개발하고 정비하여 오염되지 않는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한다.

또 Swiss의 國防은 全國土가 요새화되어 있다고 한다. 必要에 따라 2년간의 軍服務를 마치면 軍에서 使用했던 自己의 총기와 裝具, 軍服 등을 除隊와 同時에 가지고 나와 平生 동안 運用관리하며 有事時 武器로 代替하면서 豫備軍으로써 國防의무를 充實히 수행하기 때문에 全國民이 총·칼을 든 실제 軍人役割를 擔當하게 된다.

우리 豫備軍들의 形式的인 동원훈련에 比해 한번쯤 우리 모두가 再考해 볼 일이라 生覺하면서 저녁식사후 조용한 市街地를 돌아보고 차가운 안개 바람을 맞으며 숙소인 Flora Hotel로 돌아 왔다.

南北이 分斷된 우리나라의 38線, 軍事分界線을 보면서 살아온 우리들은 소위 國境이라는 것을 大端한 장벽으로 알고만 살아왔다. 또한 日本等 外國으로 入國할 때는 바다를 건너고 入國節次를 밟고 상대국 政府의 承認을 得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이 깊숙히 배여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 Europe은 그렇지 않다. Swiss에서 아침 食事を 일찌기 마치고 自國의 관광 BUS를 타고 Non Stop으로 몇 시간을 달려서 조그마한 초소앞에 멈춰섰다. 두사람이 독일병 군복을 입고 여유만만하게 웃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초소앞에는 동그란 푯말이 있고 그 안에는 원형으로 10個의 별마크와 함께 하단부에 독일이라고 선명하게 表示되어 있다. 여기가 바로 독일과 스위스의 國境線이라 했다. BUS에 승차한 우리들과는 관계없이 초병과 운전수만이 서류를 확인하고 이내 떠나버린다. Europe國家의 國境선통과는 이렇듯 쉽게 이루어졌다. 같은 民族이 살고있는 우리나라의 휴전



• 독일의 住宅街

선인 38線에서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일이다, 같은 民族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닌가?

우리를 태운 BUS는 國境線을 통과한 후 티티새를 경유, 후랑크푸르트를 向해 깨끗하게 포장된 山속의 Asphalt 도로를 따라 달린다.

독일 남부지방에 위치한 천혜의 수림대인 티티새 地域은 울창한 수목으로 국토를 조경화한 예술품의 진열대요 살아 숨쉬는 한 폭의 그림들이었다. 아담한 마을엔 中間中間 1~3층의 주택들을 신축하고 있었다. 독일식 특유의 Design에 Brick-Block 목조식인데도 매주택마다 소형 Tower Crane이 한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기 드문 일이었다.

우리 style이라면 한달 공정에 불과하겠지만 그들은 장인정신에 基盤을 두고 工期에 구애되지 않는다니 自然的으로 百年大計를 보는 作品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았다. 티티새를 지나 독일 역사의 산실인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다. 1300年頃에 築造하여 400余年에 걸쳐 完成하였다는 하이델베르크(Heidelberg)城은 “네카어江”을 굽어보는 높은 언덕위에 자리잡은 古城으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樣式이 혼합된 建造物이다. 地下에는 藥學博物館과 221,726리터(ℓ)짜리 오크술통

이었는데 136그루의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술통이라고 한다. 술통을 구경하는데는 사다리를 타고 외나무길을 통과해서 한바퀴 돌아와야 한다. 술통이 위치한 실내와 포도주를 시음하는 휴게실 내부 벽에는 世界各地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수십년에 걸쳐 自己의 이름을 sign으로 남겼는데 낮익은 한국글씨도 상당히 눈에 띄었다. 바로 그 아래 세워진 大學은 古城이며 독일의 학문과 철학의 메카, 14세기에 세워졌다는 독일 최고의 하이델베르크大學으로 歷史만큼이나 도도한 자태와 독일의 영웅들을 길러낸 產室로 네카어江을 바라보며 낡은 古風의 자태로 남아있다.

外型만을 치중해서 고층으로 만들어내는 신관 우리나라 대학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낡고 村스러운 學校施設에서 學問을 研究할 수 있을런지 의구심마저 생겨난다.

獨逸은 “West Germany”에서 “Federal Republic of Germany”로 統合된 후 '91年 基準하여 16個洲의 人口가 7천 850만명으로 게르만 民族 특유의 근면성과 예술성, 그리고 과학성을 바탕으로 GNP 世界4位, 수출 世界1位로 독일은 앞으로 EC뿐만 아니라 동구경제권의 장악은 물론, 세계무대를 이끌어 나아갈 잠재

력이 그 어느나라보다도 충분하다고 한다. 독일의 교통망은 “루프트 한자”항공에 의해 공로로 연결되는 10여개의 공항과 28,000km에 달하는 국영철도(DB), 國內 47개 大都市를 맺어주는 特急列車 Intercity, Europe 13個國 200個 도시를 연결하는 Euro City外에 장거리 急行列車 아일츠크, 보통열차 슈넬츠크 등이 있으며, 대도시에는 지하철(U-Bahn)과 電車(S-Bahn)가 4通8達로 잘 발달되어 있는 Europe 교통의 요충지라고 한다. 특히 超高速走行을 자랑하는 獨逸의 고속도로 아우토파(Auto Bahn)은 세계에서 속도제한이 없는 유일한 고속도로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총연장 7천 600km로 전국 웬만한 곳은 Rent Car를 타고 時速 200~300km로 단시간내에 달려갈 수 있다고 하니 경부고속도로가 매일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나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Heidelberg에서 Farankfurt를 향해 달리는 우리가 탄 Bus의 속도는 시속 90~100km인데 6次線 Auto Bahn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는 Back Number를 읽지 못할 정도로 쏟아져 달려간다. 그 박진감 넘치는 고속주행에서도 교통질서와 준법정신은 대단히 투철하며 차량의 정체나 事故는 지극히 드물다고 하니 우리의 교통현실과 비교할 때 이 나라는 얼마나 교통선진국인가 싶다.

저녁에 Frankfurt 驛舍 앞의 地下鐵 광장을 지나온 나는 기대에 부풀었던 獨逸에 對한 동경과 존경심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깨끗이 정돈된 地下鐵廣場에는 독일의 젊은 靑年들이 알콜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거지들과 함께 산 송장처럼 곳곳에 나뒹굴고, 어린이를 포함한 도둑들이 득실거리며 地下鐵 入口에는 이들의 방뇨로 차가운 날씨인데도 인분 썩은 냄새로 코를 막고 지나야만 할 정도로 불결

하기 짝이 없는 중심가였다.

독일 하면 미·영·불·소와 함께 世界 超 強大國으로 유구한 역사속에 굳게 자리잡아 왔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후 전승국들에 의해 동·서로 양분되어 조국 분단의 아픔을 겪어오다가 1990년 10월 3일 동서화해의 氣流를 타고 전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역사적인 재통일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그렇게도 애타게 전국민이 갈망하며 반세기를 기다려 이룩한 값진 독일 통일인데, 어찌하여 오늘날 독일의 한 부분이 이렇게 쇠퇴하여 간단 말인가.

Guide는 독일사회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통일전 서독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美와 예절을 겸비한 국제신사의 도시요, 국민 모두가 생활전선에서 촌각을 다투며 열심히, 그러면서도 즐겁게 일하며 살아온 근면 성실한 국민들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루면서 이룩한 통일독일은 통독후 동독인들이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서독으로 대거 넘어온 후, 정당한 취업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놀고 먹기식의 안이한 생활방식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로부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해서 東獨출신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타락현상이 확산되면서 독일국가에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추구하는 초강대국인 독일 통일후의 사회의 한 단면을 잠시나마 직접 체험하면서 민족분단이라는 동일한 조건속에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통일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새삼스런 생각을 해보게 한다. ㉞

